

증시훈풍에 온 가족이 투자자로... 주식활동계좌 1억개 '흠뻑'

삼성·SK 등 국내주식 상승세 지속 6개월새 활동계좌 1000만개 '껍충' 미성년자 계좌 증가세 두드러져

#.전업주부 이래연(55)씨 가족은 모두가 '투자자'다. 이씨와 남편은 2020년쯤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코로나19 사태 때 본격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주식으로 채웠다. 기록적인 상승장인 요즘 이씨 가족 단톡방의 주요 대화 주제 역시 주식 투자다. 특히 올해 대학 3학년인 아들(25)이 핵심 멤버로 합류했다. 이씨는 "아들이 군대에서 받은 월급과 그간의 용돈 등을 모아 주식 투자에 나섰는데, 빅테크와 반도체주 등 요즘 뜨는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아 꽤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각자 공부한 내용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일종의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11년 차 직장인 은용주(35)씨는 지난달엔 두 살짜리 딸의 주식 계좌까지 만들었다. 삼성전자 주식 5주, 현대차 3주를 사줬다. 은씨는 "20~30년 묵혀두면 아이한테 경제적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8471.02)보다 459.28포인트(5.42%) 오른 8930.30에 마감했다. /뉴시스

으로 도움이 될까 싶어 주식 계좌를 만들어 줬다. 주식 비중을 더 늘릴 작정이다"라고 말했다. '부모 개미'의 대열에까지 합류한 것이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온 국민이 주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전체 활동계좌 수는 1억1000만개에 달한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국내 전 증권사의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1억877만개로 집계됐다.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예약자산이 10만원 이상이고 최근 6개월 내 한 차례 이상 거래한 위탁 매매 계좌와 증권저축 계좌를 의미한다.

지난해 말 9828만개였던 활동계좌는 약 6개월 만에 1049만개 늘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증가한 계좌수(1172만개)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전체 국민 수를 약 5000만

명으로 보면 1인당 2개 이상의 주식계좌를 보유한 셈이다.

계좌 증가는 올해 이어진 증시 강세와 맞물려 있다.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신규 투자자 유입이 늘었고, 기존 투자자들도 복수 계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성년자 계좌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대신증권 분석에 따르면 올해 1월 대비 4월 0~9세 신규 계좌 개설은 119.2% 증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의 올해 1분기 미성년자 계좌 개설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272% 늘었다. 증시 호황 속에서 부모들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장기 자산관리와 증여를 병행하려는 수요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두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한 직장인 한두나(39)씨는 "장기적으로 투자 경험을 쌓게 해주고 싶어 계좌를 만들었다"며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만큼 주식을 사 모아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도 영향을

미쳤다. 미성년자 계좌 개설 지원금 지급, 타사 보유 주식 이전 이벤트, 국내주식 복귀계좌(RIA) 마케팅 등이 신규 계좌 개설을 자극했다. 해외주식에 집중됐던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로 다시 눈을 돌리면서 복귀 수요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IPO 시장도 계좌 증기를 뒷받침했다. 공모주 청약에 위해서는 주관 증권사 계좌가 필요해 신규 계좌 개설이 꾸준히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 IPO 시장 규모는 예년만 못했지만, 일부 새내기주가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3배까지 오르는 '따따볼'을 기록하면서 공모주 투자 열기를 이어갔다.

증권업계에서는 국내 대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강세가 투자 심리를 개선한 데다 연금계좌와 자녀 계좌 개설까지 확대되면서 활동계좌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中 CXMT 상장 임박... 글로벌 메모리 투자지형 흔들나

대표 D램기업... IPO 조달규모 6.5조 HBM 경쟁력 위협 가능성은 제한적



CXMT 로고

중국 최대 D램(DRAM) 업체인 CXMT가 상하이 과장판 상장을 앞두고 글로벌 메모리 투자 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 중심으로 형성됐던 메모리 반도체 투자 구도에 중국 대표 D램 기업이 새 축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25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CXMT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기업공개(IPO) 등록 승인을 받고 이르면 7월 중 과장판에 상장할 전망이다. IPO 조달 규모는 295억위안, 약 6조5000억원으로 SMIC에 이어 과장판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조달 자금은 D램 기술 고도화와 차세대 D램 연구개발, 메모리 양산라인 고도화 등에 투입된다.

CXMT는 올해 1분기 매출 기준 글로벌 D램 점유율 7.6%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 세계 4위다. 지난해 1분기 4.1%였던 점유율은 1년 만에 3.5%포인트 상승했다. 주력 제품도 LPDDR5-5X와 DDR5까지 확대되며 모바일 중심에서 서버용 D램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다만 CXMT가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을 위협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신승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HBM 영역에서 CXMT와 글로벌 3사 간 격차는 최소 3년 이상"이라며 "EUV 장비 부재로

인한 수율 저하가 핵심 제약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변수는 범용 D램이다. 신 연구원은 "CXMT의 양적 확장이 2026~2027년 업황을 흔들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2028년 이후 다운턴에서는 가격 교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내수 고객 기반과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할 경우 범용 D램 가격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상장 이후 기업가치에 대한 기대도 크다. CXMT는 올해 상반기 지배주주 순이익 가이던스로 500억~570억위안을 제시했다. 이를 연율화하고 현지에서 거론되는 2026년 예상 주가수익비율(PER) 20~25배를 적용하면 예상 시가총액은 2조1000억~2조7000억위안, 약 450조~562조 원 수준이다.

신 연구원은 "CXMT는 중국 A주 시장

의 메모리 익스포저 부재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며 "SMIC를 넘어 과장판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등극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투자 수혜는 CXMT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상장 이후 조달 자금이 생산라인 고도화와 공정 전환에 투입되면서 식각·증착·세정 등 전공정 장비와 소재·가스, 후공정 업체로 낙수 효과가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개인투자자는 CXMT 개별 종목 직접투자에 제약이 있는 만큼 과장판 또는 중국 반도체 ETF를 통한 간접 접근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신 연구원은 "핵심 이벤트는 발행가와 상장일, 후강통 편입 여부, 과장50 편입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24일 오전(현지 시각)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글로벌 청산기관 협회(CCP Global) 정기총회를 마치고 티모시 커디히 CCP Global 집행위원회 위원장(왼쪽 부터 시계방향), 박상욱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장, 테오 플로어 CCP Global CEO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박상욱 한국거래소 본부장 CCP글로벌 집행위원 선출

한국거래소가 글로벌 중앙청산기관 협회(CCP Global)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에서 다시 한 번 역할을 맡게 되면서 국제 자본시장 내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24일(현지 시각) 오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글로벌 청산기관 협회 정기총회에서 박상욱 청산결제본부장이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 기관들은 한국거래소의 견고한 청산·결제 수행 능력과 인프라 고도화 등 금융시장 안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CCP Global은 자본시장 내 청산·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전 세계 33개국 45개 중앙청산기관(CCP)이 모인 글로벌 협회로, 2001년 1월 설립됐다. 협회의 최고결기구인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17개 회원사 대표로 구성돼 협회 운영과 관련된 핵심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2년부터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CCP Global 집행위원회를 통해 CCP 관련 글로벌 의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리스크관리 체계의 국제정합성 강화 등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NH-Amundi자산운용 美 AI메모리반도체 ETF 순자산총액 1500억 돌파

NH-Amundi자산운용은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HANARO 미국AI메모리반도체TOP4+ ETF'의 순자산총액이 1500억원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해당 ETF의 순자산은 159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2일 상장 당시 100억원 규모에서 약 한 달 반 만에 1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HANARO 미국AI메모리반도체TOP4+는 AI 메모리와 스토리지 분야를 주도하는 미국 대표 4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와 함께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공정·장비 기업들을 담아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한다.

/허정윤 기자

하나증권, 프리미엄 금융센터 'THE H1 W' 오픈

현대백화점 목동점 6층 위치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이사(왼쪽 네번째)와 김창섭 현대백화점 부사장(오른쪽 세번째)이 개점 기념 행사에 참여해 임직원, 주요 손님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하나증권

하나증권은 현대백화점 목동점 6층에 WM, IB, S&T 등 각 부문 역량을 집결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THE H1 W를 신규 오픈하고 개점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진행된 개점 기념 행사에는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이사과 김창섭 현대백화점 부사장을 포함한 임직원들과 손님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THE H1 W는 현대백화점 VIP(자스민 손님) 손님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금융센터다.

하나증권은 THE H1 W에서 주식, 채권 등 자산관리 서비스는 물론, NEW 패밀리 오피스 인수창업 서비스도 선보인다.

하나증권 THE H1 W는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와 VIP채널을 활용한 금융 세미나와 문화 프로그램 등도 운영 예정이다. 카페라운지 등 손님 대상 프라이빗 공간을 운영하고 현대백화점 앱을 통한 접점을 확대하는 등 일상 속에서 금융 서비스 경험을 늘려갈 예정이다.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이사는 "THE H1

W는 금융상품 경쟁력과 프리미엄 손님 채널, 차별화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자산관리 플랫폼"이라며 "손님의 자산 증식과 기업승계, 차세대 성장까지 지원하며 일상 속에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